

# 8강 확정 신태용호 “이라크전은 자존심 싸움”

### AFC U-23 챔피언십 C조 2차전 권창훈 3골...예멘 5-0 대파 20일 이라크와 3차전...“대진은 위해 일부러 패하진 않을 것”



8강 진출을 확정 한 태극전사들이 이라크를 상대로 아시아 최강의 자존심을 세운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20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이라크와 올림픽 예선전을 겸해 열리는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C조 3차전을 치른다.

일단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예멘을 연파하면서 리우데자네이루를 향한 궤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첫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둔 뒤 '3골 1도움'을 올린 권창훈의 활약 속에 예멘을 5-0으로 대파했다.

신 감독은 16일 예선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와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라크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 D조 1위나 2위 팀과 8강에서 맞붙게 된다. 현재 D조 상황을 보면 1패를 안고 있는 호주가 2위, 호주를 꺾은 아랍에미리트(UAE)가 1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 UAE보다는 호주가 좀 더 걸리려운 상대다.

신 감독도 “솔직히 호주를 피하고 싶다. 호주보다는 UAE가 수월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우승을 목표로 삼은 신 감독은

오직 전진만을 외쳤다. 8강에서 좀 더 쉬운 상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패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신 감독은 “만약 3차전에 진다면 선수들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어린 선수들이지만 패배 이후 분위기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신 감독은 이라크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이라크와 역대 전적에서 2승2패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대회 AFC U-23 챔피언십 우승팀인 이라크는 만만한 팀이 아니다. 이라크는 예멘과 1차전에서 2-0으로 이겼고, 우즈베키스탄과의 2차전에서 3-2로 승리했다.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결승골을 뽑아낸 미드필더 후맘 타레크 파라즈는 예리한 왼발 슈팅 능력을 갖고 있고, 알리 히스니 파이살도 골문 근처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경계 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맞서는 한국도 베스트 멤버를 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 감독은 “예선전에서 체력안배를 하고도 대승을 거뒀다”며 이라크전에서의 선수구성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코백 부상으로 예선전에 결장한 송주훈(미토 홀리호크)은 다시 포백(4-back) 라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연습뉴스



지난 16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카타르SC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C조 예선 대한민국대 예멘과의 경기에서 한국의 권창훈이 득표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식번호 받고 첫 스프링캠프 KIA 박진두·박동민

### “선배 노하우 흡수” 박진두

KIA의 10번 박진두(20)와 39번 박동민(24)의 ‘두근두근’ 생애 첫 스프링캠프가 시작됐다.

KIA의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선수단이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10시간 가량의 비행 끝에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버스로 5시간 여를 달려 담금질의 무대인 스킵스데일에 도착했다. 고된 이동에도 웃음이 멈추지 않는 두 선수가 있다. 새로운 이름과 기회를 받은 고졸 3년 차의 좌타격포 박진두와 대졸 2년차 사이드암 박동민이 그 주인공이다.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선수들은 새 유니폼을 지급받았다. 야구 선수에게 배반은 자신의 또 다른 이름. 박진두와 박동민은 10번과 39번이라는 새 이름까지 동시에 받았다. 육성선수 신분으로 07과 017을 사용했던 이들은 정식번호와 함께 생애 첫 스프링캠프라는 기회를 품었다.

“감독님의 약속대로 10번을 받게 돼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박진두. 지난 마무리 캠프에서 박진두는 “몇 번을 달고 싶으냐?”는 김기태 감독의 질문을 받았다. 박진두는 조계현 수석코치의 조언 속에 10번을 이야기했고, 10번의 주인 황대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터라 오케이 사인이 나왔다. 그리고 약속대로 10번이 박진두의 이름이 됐다. 황대인의 군입대 불발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지만 지



난 1년 사연 많았던 황대인이 새 기본으로 출발하고 싶다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용했던 10번 대신 5번을 선택하며 자연스럽게 번호이동이 이뤄졌다.

박진두는 “체력테스트가 끝나고 캠프명단이 발표됐는데 내 이름을 보고 기분이 정말 좋았다”며 “지난해 체력테스트 러닝을 겨우 뛰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좋은 기록으로 들어왔다. 열심히

### 박동민 “나를 각인 시킬 것”



했다. 자부심도 느껴졌고, 개운하고 후련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기분 좋고 더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쟁쟁한 선배들과 치르는 첫 캠프. 꼭 같이 그라운드에서 운동을 하고 싶었던 최희섭 선배가 없다는 게 아쉽지만 선배들의 노하우를 흡수하고 자신만의 힘과 타격을 보여주고 싶다.

박진두는 “주변의 기대를 부담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배님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시는지 보고 배우고 생각하겠다. 오키나와캠프와 시범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 기회를 잡고 싶다”며 “타격과 힘으로는 선배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도목 하겠다”고 캠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박동민도 새 유니폼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잠수함’ 유동훈 코치의 번호이기도 한 39번, 꼭 달고 싶던 번호다.

박동민은 “대학 때부터 달고 싶던 번호다. 새 번호의 유니폼을 받고 기분이 좋았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정식선수가 됐다. 사실이 부끄러우기도 했다”며 “스프링캠프를 기대하긴 했지만 진짜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회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박동민은 ‘각인’을 목표로 캠프를 치를 생각이다.

박동민은 “점점 욕심이 생긴다. 마무리 캠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한다.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하고, 나를 각인 시켜야 한다”며 “잔부상이 많은데 부상 관리 잘하겠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운동을 하게 됐다. 긴장도 되지만 의식하지 않고 내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오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알피니스트 산실 ‘광주·전남등산학교’ 개설

### 21~27일 한라산

지역 알피니스트의 산실인 ‘광주·전남등산학교’가 오는 21일부터 한라산에 개설된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과 (사)광주전남등산학교는 “제37회 광주·전남등산학교 동계반을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국립공원 한라산 일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연맹(회장 임승진)과 전남도연맹(회장 이상현)이 주최하는 이번 등산학교는 일반과정과 지도자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과정에는 산악회원은 물론 등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지도자 과정은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자와 전문등반에 대한 기초지식 보유자가 입교 대상이다.

교육은 장비사용법, 프랑스식 등반기

술, 러셀, 글리세이딩, 활락정지(漸落停止), 설상확보물 설치, 주마령, 안자일렌, 실벽등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2차례 종합훈련으로 마무리한다.

6박7일간 필요한 장비·빙벽 장비와 식량을 준비해 오는 21일 오후 4시까지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내 광주시산악연맹으로 집결하면 된다. 입교비는 일반과정 12만원, 지도자과정 10만원.

문의와 접수는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사무국(062-521-8848, 010-4640-8848)에서 받는다. 광주·전남등산학교는 지난 1979년 8월 지리산 피아골에 개설된

‘제1회 산악학교’가 그 효시로 하게 정구반과 암벽반, 동계반 등을 매년 운영해 지금까지 3000여명의 산악인을 배출했다.

김경자 광주·전남등산학교 교장(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회장)은 “올바른 산악문화와 등산기술을 보급하는 등산학교에는 히말라야 등반 등 풍부한 실전 경험을 지닌 산악인들이 강사로 참여해 하안산에 도전하고픈 산악인 지망생들에게 강인하고 건강한 산악정신을 심어줄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지울기자 dok2000@kwangju.co.kr

## K리그 클래식 3월 12일 개막

### 광주FC, 포항 원정 경기...전남, 13일 홈서 수원전



3월 12일 K리그 클래식이 8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5일 2016 K리그 클래식 경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공식개막전은 3월12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5 클래식 우승팀’ 전북 현대와 ‘2015 FA컵 우승팀’ FC 서울의 맞대결로 결정됐다.

전남 드래곤즈는 13일 수원 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같은 날 제주 유나이티드-인천 유나이티드(오후 2시·제주월드컵경기장), 상주 상무-울산 현대(오후 4시·상무시민운동장)의 경기도 치러진다.

수원 FC가 클래식 무대로 도약하면서 성사된 수원 삼성과의 ‘수원더비’는 5월14일 펼쳐진다.

클래식 12개 팀은 팀당 38경기씩 총 228 경기를 치른다. 3월12일 시작된 대장정은 11월6일 마무리된다.

대회방식은 지난 시즌과 같다. 12개팀이 3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33라운드 일정을 소화한 뒤, 1~6위와 7~12로 그룹으로 나눠 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한다. 스플릿 라운드는 그룹 A, B로 나눠 팀당 5경기씩 진행되며, 이에 따라 우승팀과 강등팀이 가려진다.

한편 3월26일에는 K리그 챌린지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린다.

챌린지는 10월30일까지 44라운드 일정으로 전개되며 11월2일 준플레이오프, 11월5일 또는 6일 플레이오프가 치러진다.

승격과 강등이 걸린 ‘운명의 승부’ 승강 플레이오프는 11월17일과 20일 각각 1·2차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

## “K리그 공인구에 응원 문구 새겨요”

### 2016 캐치프레이즈 공모

프로축구연맹이 2016시즌 K리그 공인구에 새겨질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최고의 캐치프레이즈로 선정된 작품은 2016 K리그의 공인구인 아디다스의 ‘에레조타’에 새겨져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그라운드를 누비게 된다.

공모 이벤트는 K리그 공식 SNS인 페이스북(www.kleague.com/withk-league), 인스타그램(kleague), 트위터(@kleague)와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이벤트 기간은 26일까지이며, K리그 공식 SNS에 올라온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응모하면 된다. 그리고 1차 이벤트

베스트 댓글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1월28일부터 2월2일까지 2차 투표가 이뤄진다.

투표는 네이버 스포츠 투표창을 통해 진행되며, 팬투표 70%와 심사위원단 심사 30%를 통해 최종작이 선정된다.

당첨자에게는 응원구단의 제주 원정 숙박권(1박)과, 항공권(동반 1인), 응원문구가 새겨진 공인구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2등에게는 응원 구단의 2016시즌 유니폼과 응원문구가 새겨진 공인구, 3등에게는 응원문구가 새겨진 공인구가 주어진다.

또 댓글 및 투표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2016시즌 K리그 캘린더와 K리그 자석 세트를 선물로 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